

발생량억제와 재자원화가 폐기물문제해결의 열쇠입니다

■ 편집부

폐기물의 문제가 날로 복잡, 고도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그 발생량의 억제와 재자원화를 핵으로 하는 폐기물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쓰레기의 거의 전량을 비위생 매립처분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9월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18일과 19일에 거쳐 승실대 학교에서 개최될 '특정폐기물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심포지움'에 많은 환경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에 만난 환경인은, 본 행사의 운영위원장인 승실대 화공과 都甲守교수를 만났다.

"본 행사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 5개국에 '유독화학물질과 특정폐기물의 안전 및 관리'라는 주제 아래 3년간 지역적인 과제로 연구중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정폐기물분야를 제일 먼저 개최하게 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본

“
너무 환경만 내세워 목소릴 높여서도 안되며, 개발만을 내세워 방관해서도 안됩니다. 환경오염의 오염자며 피해자인 바로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제에 이번 교육은 시기적으로도 뜻깊고 더욱이 우리의 UN가입후 아마 공식적인 첫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폐기물문제는 행정부서나 처리업자뿐 아니라 발생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이번 교육은 실제로 폐기물을 관장하는 기관, 재생·처리업체 등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회, 철강협회 등의 후원아래 순수 민간 주도로 치루게 된 워크샵이라

는 점도 강조했다. 일상생활 혹은 생산공정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폐기물 속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위험적'인 요소가 많긴 하지만, 유가의 자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 따라서

“폐기물관리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발생량을 줄이느냐 즉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줄인다는 환경측면 또 하나는 어떻게 재활용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분야에 있어 都교수는 설명이 전혀 필요없는 환경인이다. 전공은 화학공학이지만 부전공은 '환경'이라고 말하는 그는 지난 '77년에 화공기술사, '81년엔 환경기술사(수질관리)를 취득했다.

'화학장치 및 설비'엔 물리 기계적인 모든 과정을 제작·설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都교수는 거의 99%가 환경오염물질인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화공엔지니어가 자신이 만든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수질

이나 대기분야 역시 처리과정이 화공원리이므로 당연히 환경쪽을 해야한다는 것. 그러므로 그가 환경분야에 뛰어든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었다.

'80년부터 이곳 숭실대에 몸담아오고 있는 都교수는 현재 특허 신청을 내기도 한 '폐목재와 폐 PE film을 이용한 연료 및 열회수 시스템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숨가쁘게 달려온 길이였지만, '수처리이론 및 응용' '폐기물 자원화 편람' 등의 저서를 출간했고 술한 연구논문들을 지상에 발표하는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처의 정책과제도 많이 수행했다. 최근 확정된 폐기물처리비에치금제에도 깊이 관여한 그는 일시에 이렇게 많은 품목을 다룬 사례가 없었으므로 앞으로 잘해나간다면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소 그의 환경관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너무 환경만 내세워 목소리 높여서도 안되며, 개발만을 내세워 방관해서도 안됩니다. 환경오염의 오염자며 피해자인 바로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사실 일단 오염된 상태를 전보다 깨끗이 하기란 어려운 것. 따라서 현상태를 어떻게 유지해나가느냐가 오늘날 환경문제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 都甲守교수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게, 서서히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줄 압니다.

가령 매립지의 확보가 NIM-BY 현상으로 어렵다면, 매립장이 들어선 지역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 시설이나 체육시설의 확보 청 소비 삭감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립장이 들어서지 않은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등의 상대적인 방법으로 손해봤다는 느낌을 주고 말입니다.

영남대 공대 화학공학과 · 同대학원 졸업(공학박사)

前, 경북공업전문대학 부교수, 동력자원부 대체에너지개발전문위원 / 現, 환경처 폐기물 · 환경영향평가 부문위원, 한국폐기물학회 학술 · 편집이사,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 검토 · 전문위원, 서울시 환경분쟁 조정위원, 환경관리공단 기술자문위원, 한국자원재생공사 자문위원, 숭실대 화학공학과 교수

참가희망자가 수용인원선을 넘을까봐 걱정이라는 都교수의 행복한 고민을 들으며, 더 이상의 시간을 뺏지 않으려 총총히 연구실문을 나섰다. ◼